

## 제18대 총선과 서울: 폭풍속의 민주당 생존자

손병권 | 중앙대학교

### | 논문요약 |

2008년 제18대 총선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경기도와 함께 서울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선전이 주효했다. 서울의 전체 48개 선거구 가운데 구(舊)열린우리당(이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선거구는 32개에 이르렀지만, 제18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선거구는 7개로 줄어들었다. 열린우리당에 뿌리를 둔 이들 32명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계륜 의원을 제외하면 21명의 민주당 현역의원이 다시 자기 선거구에서 출마하였고, 이 가운데 당선된 민주당 의원은 단 세 명의 의원뿐이다. 이들 세 명의 현역의원에 더하여 한 명의 현직 비례대표 의원과 세 명의 비현역의원이 등 네 명이 당선되어 모두 7명만이 기존의 민주당 지역구를 지킬 수 있었다. 이 글은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들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고자 했다. 잠정적인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민주당 당선자 7인은 각 선거구 상대후보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낙선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후보들이었다. 전반적으로 이들 당선자들은 해당 지역구의 상대후보에 비해서 선거, 정치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깊다. 또한 적어도 지역구에서의 인지도 면에 있어서도 상대후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 둘째, 이들 민주당 당선자가 등장한 지역구는 민주당 낙선자의 지역구보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약세지역 혹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보인다. 이들이 당선된 지역은 정당기반 등의 측면에서 한나라당 약세지역으로 추정되며 기타 25개 민주당 낙선자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다.

## I. 서론

지난 2007년 12월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몇 달 이후 연이어 실시된 2008년 4월 9일의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역시 승리를 거두었다.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심리는 총선에도 그대로 이어져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를 발판으로 원내 안정 다수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영남지방에서 친박연대가 한나라당 의석을 잠식하고 충청지방에서 자유선진당이 득세하여 한나라당의 완승에는 제동이 걸렸으나, 우리 국회는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등을 포함하는 보수세력이 단연 주도권을 장악하는 형국을 이루었다. 도표를 통해서 보면 제18대 총선 결과 나타난 각 정당의

〈표 1〉 제18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sup>1)</sup>

정당명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전체 의석수
한나라당	131	22	153
통합민주당	66	15	81
민주노동당	2	3	5
자유선진당	14	4	18
친박연대	6	8	14
창조한국당	1	2	3
진보신당	0	0	0
무소속	25	0	25

1) 총선 이후 공식적인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나서 무려 82일 만에 열린 제18대 국회 내에서의 의석 비율은 총선 직후의 의석 비율과는 조금 다르다. 이는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 문국현 의원이 이끄는 창조한국당이 자유선진당에 합류하여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하였고 일부 친박연대 소속 의원들의 한나라당 복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1일 현재 국회는 한나라 172명, 민주당 83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0명 등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과, 비교섭단체 24명(친박연대 8명, 민노당 5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10명(김형오 국회의장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의석분포는 2008년 10월 1일자 국회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현황'에 근거한 것이다.

의석분포는 아래와 같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보진영의 세력은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위축되었다. 이는 지난 2004년 4.15 총선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진보진영이 차지한 의석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제18대 총선 이후 진보세력의 총의석수는 통합민주당(이하 민주당) 81석, 민노당 5석, 친민주계 무소속 15석으로 분산 배분되었다. 그러나 제17대 총선 이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등 진보세력이 무려 162석을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제18대 총선의 결과는 과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고 불린 만한 것이었다.

제18대 총선을 통해서 보수세력의 맹주로서 한나라당이 압승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선전이 주효했다. 충남에서 자유선진당이 약진하고 충북에서 민주당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였으며 영남에서 친박연대와 일부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여 한나라당이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내 안정 다수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수도권에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배경이 되고 있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과거 원적지 중심의 혈연 및 학연 중심의 투표행태가 상당히 흔들리면서 호남 원적자 가운데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고 그 결과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선전할 수 있었다. 제17대 총선 이후 서울의 전체 48개 선거구 가운데 구(舊)열린우리당(이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선거구는 32개에 이르렀지만, 제18대 총선 이후 민주당의 선거구는 7개로 줄어들었다. 나머지 무려 40개의 선거구는 모두 한나라당의 차지가 되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의석상실과 관련하여 이 글이 논의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서울의 민주당 지역구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제18대 총선 이전까지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던 의석의 총수는 전체 48석 가운데 32석이었다. 열린우리당에 뿌리를 둔 이들 32명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계륜 의원을 제외하면 21명의 민주당 현역의원이 다시 자기 선거구에서 출마하였다. 그리고 서울지역 현역의원 가운데 자기 지역구에서 다시 출마하지 않은 의원은 10명이 된다. 이러한 10개의 서울시 선거구에서는 비현역 후보나 정동영 의원과 같은 서울시 이외의 타지역구 출신 현역의원 혹은 박영선 의원과 같은 비례대표 현역의원 등이 출마하였다.

그리고 현역 지역구 의원의 자격을 갖추고 민주당 공천으로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의원은 21명의 현역의원 가운데 18명을 제외한 단 세 명의 의원뿐이다. 이들은 강북을 선거구의 최규식, 은평갑 선거구의 이미경, 동작갑 선거구의 전병헌 의원 등이다. 이들 세 명의 현역의원에 더하여 광진을 선거구의 추미애 전의원, 구로을 선거구의 박영선 비례대표 의원, 관악을 선거구의 김희철 후보, 송파병 선거구의 김성순 전의원 등 네 명이 당선되어 모두 7명만이 기존의 민주당 지역구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2004년 17대 총선 결과 열린우리당이 장악해 왔고 이후 민주당 지역구가 된 전체 32개의 선거구 가운데, 7개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이 의석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모두 한나라당에 패배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은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이들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18대 총선 당시 수도권 지역에서 한나라당 바람이 태풍처럼 거세게 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7개 선거구는 이러한 태풍을 견디고 민주당 후보를 지켜냈다. “한나라당의 태풍을 견뎌 낸 이들 민주당 당선자과 이들이 출마한 지역구는 낙선한 기존 민주당 선거구의 출마자 및 그들의 지역구와는 구별되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초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진행되는 이 글은 먼저 제II절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서울의 7개 지역구 선거현황이 간단히 소개될 것이다. 이어서 제III절에서는 지역구 후보자의 연령 및 당선회수, 제18대 및 제17대 총선에서의 지역구별 한나라당 득표율, 그리고 각 지역구의 재정자립도 등을 통해서 민주당 당선자와 민주당 낙선자를 정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민주당 당선자의 특징을 발견해 보고자 할 것이다. 그 후 제IV절에서는 정성적(定性的)인 수준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7개 선거구별 후보자 간 경쟁력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인 제V절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요약할 것이다.

## II. 민주당 승리 7개 지역구의 선거현황

한나라당이라는 거센 파도를 뚫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존한 서울의 민주당 후보는 광진을 선거구의 추미애, 강북을 선거구의 최규식, 은평갑 선거구의 이미경, 구로을 선거구의 박영선, 동작갑 선거구의 전병헌, 관악을 선거구의 김희철, 송파병 선거구의 김성순 후보 등이다. 이들이 당선된 7개 선거구는 모두 제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이 장악한 바 있는 서울 소재 32개 선거구에 속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기존의 한나라당 선거구에서 현역의원을 격파하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열린우리당과 이를 계승한 민주당 선거구를 지켜낸 후보들이다.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기존 민주당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 새로 의석을 추가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들 7인의 민주당 당선자가 출마한 지역구의 민주당 현역의원, 차점자 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진을 선거구는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김형주 의원이 추미애 의원에 밀려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신 곳이다. 이곳에서 제18대 총선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추미애 전의원은 34,854표를 얻어 24,914표를 얻은 한나라당의 박명환 후보를 51.29% 대 36.66%로 가볍게 제압하였다. 강북을 선거구는 제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최규식 의원이 그대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하여 한나라당의 이수희 후보를 43.50%(26,391표) 대 37.83%(22,949표)로 물리친 곳이다. 그리고 은평갑 선거구는 이미 3선의 관록을 지닌 이미경 의원이 4선에 도전하여 한나라당의 안병용 후보를 45.82%(33,638표) 대 36.77%(26,993표)로 가볍게 따돌린 지역구이다. 한편 구로을 선거구는 3선의 김한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여 박영선 비례대표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된 곳이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발되어 대변인까지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34,783표(47.30%)를 얻어 29,542표(40.18%)를 획득한 한나라당 고경화 후보(제17대 비례대표 의원)에게 승리하였다. 동작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초선의원인 전병헌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여 한나라당의 권기균 후보와 접전 끝에 44.86%(38,014표) 대 43.45%(36,891표)로 신승(辛勝)하였다.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대통령 경선에도

출마한 바 있는 이해찬 의원이 출마하지 않은 관악을 선거구에서는 다른 후보와 달리 경력상 국회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민주당의 김희철 관악구청장이 출마하여 한나라당의 김철수 후보와 겨루어 46.50%(43,235표) 대 41.53%(38,618표)로 승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송파병 선거구에서는 이근식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후 제16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순 후보가 다시 출마하여 46.96%(40,623표)의 득표율을 올려 44.39%(38,397표)의 득표율을 기록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계경 후보에게 어렵게 승리하였다.

선거결과를 보면 전병헌, 김희철, 김성순 후보 등이 모두 5% 내의 접전 끝에 승리하였고, 나머지 네 후보는 상당히 여유있게 한나라당 후보를 따돌릴 수 있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해 승리한 후보는 이미경, 최규식, 전병헌 의원 등 세 명뿐이다. 제16대 의원으로 제17대 총선에 낙선한 후 다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추미애 전의원, 김성순 전의원 등이다. 이외에 김희철 의원은 국회에 처음으로 도전하여 일차 시도에 입성에 성공한 사례이며, 박영선 의원은 제17대 비례대표 의원을 거친 후 제18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 III. 민주당 승리 7개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 및 지역구 특징

제II절에서 제공된 정보를 배경으로 이 절에서는 7명의 민주당 당선자를 기타 후보군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이들 당선자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7인의 민주당 당선자와 비교될 집단은 일차적으로 민주당 지역구에서 출마했으나 낙선한 25개 지역구의 민주당 출마자이다. 이어서 7인의 민주당 당선자와 41명의 비민주당 당선자<sup>2)</sup>에 관한 비교가 시도될 것이다. 이 글

2) 서울의 '비민주당 당선자'는 이제오 한나라당 의원이 낙선한 은평을 선거구의 창조한국당 소속 문국현 후보를 제외하고는 40명 전원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의 목적이 서울에서 당선된 민주당 당선자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일차적인 비교의 준거대상은 비민주당 당선자가 아니라 민주당 낙선자<sup>3)</sup>가 된다. 즉 민주당 낙선자와 구별되는 어떤 특징을 기반으로 7명의 후보가 민주당의 간판을 달고서 서울지역에 강하게 분 한나라당 태풍을 건디고 당선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판별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적이다. 다음의 제1소절에서는 먼저 연령과 선수를 중심으로 7인의 민주당 당선자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해 보고, 이어서 제2소절에서는 제18대 및 제17대 총선의 득표율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제3소절에서는 각 선거구의 재정자립도라는 경제변수를 중심으로 7인의 민주당 당선자와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연령 및 당선 횟수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우선 연령과 당선 횟수로 민주당 당선자 7인이 기타 집단과 구별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러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이 글에서는 서로 배타적인 두 집단 간의 통계수치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두 도표는 먼저 민주당 당선자 7인과, 기존 민주당 지역구 출마 낙선자 25인 및 비민주당 당선자 41인을 각각 연령을 준거로 비교한 것이다.

〈표 2〉와 〈표 3〉을 보면 연령 면에서 민주당 당선자는 민주당 낙선자 및 비

〈표 2〉 18대 총선 서울시 기존 민주당 지역구의 민주당 당선자 및 낙선자 비교: 연령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연령	민주당 당선자	7	56.71 (7.181)	3.327	.002
	민주당 낙선자	25	48.08 (5.758)		

3) 이 논문에서 '민주당 낙선자'는 특별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18대 총선 이전 서울의 민주당 선거구에서 출마했으나 당선에 실패한 25개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자를 의미한다.

〈표 3〉 18대 총선 서울시 민주당 당선자와 비민주당 당선자 비교: 연령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연령	민주당 당선자	7	56.71 (7.181)	2,826	.007
	비민주당 당선자	41	49.80 (5.776)		

민주당 당선자와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 당선자는 민주당 낙선자나 비민주당 당선자보다 연령면에서 평균적으로 각각 8.63세, 6.91세 정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이며 그 차이의 정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두 대비집단과 비교해 볼 때 민주당 당선자는 평균적으로 약 57세에 이르는, 노년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고연령층이며, 따라서 상당한 인생의 연륜을 쌓은 후보들이라고 파악될 수 있다.

연령을 준거로 한 평균 비교분석에 이어서 아래의 두 도표는 민주당 당선자 7인과, 민주당 낙선자 25인 및 비민주당 당선자 41인을 각각 당선 횟수를 준거로 비교한 것이다.

다음의 두 도표를 보면 당선 횟수 면에서도 민주당 당선자는 민주당 낙선자 및 비민주당 당선자와 차이를 보인다. 〈표 4〉를 보면 민주당 당선자와 민주당 낙선자를 비교할 경우 민주당 당선자가 거의 1회 정도 더 당선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t값도 95% 신뢰도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표 5〉에 나타난 민주당 당선자와 비민주당 당선자를 비교할 경우 t값은 유의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의정경험은 민주당 당선자가 비민주당 당선자보다 더 오랜 것으로 나타나 있

〈표 4〉 18대 총선 서울시 기존 민주당 지역구의 민주당 당선자 및 낙선자 비교: 선수(選數)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선수	민주당 당선자	7	2.29 (0.951)	2,058	.048
	민주당 낙선자	25	1.36 (1.075)		

〈표 5〉 18대 총선 서울시 민주당 당선자와 비민주당 당선자 비교: 선수(選數)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선수	민주당 당선자	7	2.29 (0.951)	1.545	.129
	비민주당 당선자	41	1.63 (1.043)		

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민주당 당선자는 민주당 낙선자보다 당선회수 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2〉에서 연령을 준거로 민주당 당선자와 민주당 낙선자를 비교한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우리는 연령과 당선 횟수의 측면에서 민주당 당선자들이 좀더 연령이 깊고 당선경험이 많은 후보라는 특징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민주당 당선자 7인이 민주당 낙선자 25인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로부터 우리는 이들 7인의 당선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을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출된 결과는 민주당 당선자 7인이 낙선자 25인에 비해서 선거경험 및 경륜 면에서 보다 노련하고 강한 후보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선거에서 거의 한번 이상 더 당선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들 후보가 당선의 노하우를 어느 정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 있다. 혹은 좀 더 넓게 추론하면 이는 당선된 후보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상당한 지지도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거나 조직적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이러한 요소는 상대방 후보에 비해 이들의 당선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 2. 제18대 및 제17대 총선 득표율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제1절에 이어서 이 절에서는 제18대 총선 및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득표율을 준거로 민주당 당선자 7인이 기타 집단과 구별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표 6〉 18대 총선 서울시 기존 민주당 지역구의 민주당 당선자 및 낙선자 비교:  
한나라당 득표율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한나라당 득표율	민주당 당선자	7	40.1286 (3.17172)	4.669	.000
	민주당 낙선자	25	48.5932 (4.46676)		

〈표 7〉 18대 총선 서울시 민주당 당선자와 비민주당 당선자 비교:  
한나라당 득표율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한나라당 득표율	민주당 당선자	7	40.1286 (3.17172)	4.001	.000
	비민주당 낙선자	41	51.7968 (7.54848)		

이러한 비교분석을 위해서 이 절에서도 역시 독립 t-검정을 실시하였다. 위의 두 도표 〈표 6〉과 〈표 7〉은 먼저 민주당 당선자 7인과, 민주당 낙선자 25인 및 비민주당 당선자 41인을 각각 제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득표율을 준거로 비교한 것이다. 이는 각 지역구의 한나라당 지지성향을 통해서 집단간 평균비교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도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민주당 당선자 7인이 출마한 지역구의 한나라당 득표율은 25명의 민주당 낙선자가 속한 지역구의 득표율이나 41명의 비민주당 당선자 지역구의 한나라당 득표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 당선자의 지역구보다 민주당 낙선자의 지역구에서 한나라당은 평균 8% 이상 더 득표했고, 비민주당 지역구에서는 11% 이상 더 득표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32개 민주당 지역구 가운데 한나라당 약세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별 한나라당 득표율은 조직력 및 지역구민 성향을 포함하는 개별 선거구의 한

〈표 8〉 18대 총선 서울시 기존 민주당 지역구의 민주당 당선자와 낙선자 지역구 비교:  
제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득표율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득표율	18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7	34,1486 (3,12088)	2,812	.009
	18대 총선 민주당 낙선자	25	37,8412 (3,05768)		

〈표 9〉 18대 총선 서울시 민주당 당선자와 비민주당 당선자 지역구 비교:  
제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득표율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득표율	민주당 당선자	7	34,1486 (3,12088)	2,825	.007
	비민주당 낙선자	41	42,2693 (7,44145)		

나라당의 강세 여부뿐만 아니라 출마한 후보들의 경쟁력, 지역구별 이명박 대통령 및 노무현 전대통령 인기도 등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득표율을 통해서 개별 지역구의 한나라당 강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전 선거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득표율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18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총선거구수가 48개였던 제17대 총선에서의 대비집단별 한나라당 득표율을 조사해 보기로 한다. 만약 대비집단 간에 한나라당 득표율의 차이가 다시 나타난다면 우리는 제18대 총선에 국한되었던 경우보다는 더 확신을 가지고 이들 집단간에 개별 선거구별로 한나라당 강세수준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 당선자 7인이 속한 지역구는 제17대 총선에서도 다른 집단의 지역구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한나라당이 약세를 보였던 지역이었는가? 위의 두 도표는 이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두 도표 〈표 8〉과 〈표 9〉는 제18대 총선 당시 민주당 당선자 지역구와, 민주당 낙선자 지역구 및

비민주당 당선자 지역구에서 제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득표율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두 도표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제18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7인구, 제18대 총선의 민주당 낙선자 및 비민주당 당선자가 속한 지역구에서의 제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의 득표율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이 주목하는 민주당 당선자와 민주당 낙선자 지역구 간에는 약 3.5% 정도의 유의미한 한나라당 득표율 격차가 나타나서, 제18대 총선에서 두 종류의 지역구 간에 나타난 한나라당 강세 수준의 차이가 제17대 총선에서도 그 정도를 달리하여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제17대 총선 당시 탄핵의 역풍 속에서 열린 우리당이 수도권을 장악할 때에도 한나라당 득표율의 차이가 민주당 당선자 지역구와 민주당 낙선자 지역구 간에 존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경제회생의 논리를 등에 업고 수도권을 장악할 때에도 두 지역구 간에는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제18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지역구가 민주당 낙선자 지역구보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세력이 비교적 약한 지역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대 총선과 제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준거로 해서 비교해 본 결과 나타난 민주당 당선자와 민주당 낙선자 지역구간의 차이를 보면 7인의 민주당 당선자가 한나라당의 위세를 견디면서 당선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들 선거구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세력이 약한 곳이라는 점이 작용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지역구의 성향이 한나라당 약세라는 사실은 이들 지역구에서 7인의 민주당 후보가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재정자립도를 통해 본 비교분석 및 시사점

이 절에서는 민주당 당선자와, 민주당 낙선자 및 비민주당 당선자간의 지역구 특성 차이를 경제적 지표를 통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지역구별 재정자립도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다시 말해서 선거구별 경제수준의 차이가 대비집단 간

의 차이를 가져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정자립도에 관한 분석이 실시되었다.<sup>4)</sup> 그 결과는 <표 10>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두 도표를 보면 모두 t값이 매우 낮아서 통계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두 도표가 보여주는 결과 사이에는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민주당 당선자와 민주당 낙선자를 비교해 보면 민주당 당선자의 선거구가 낙선자의 선거구보다 재정자립도로 살펴 본 경제수준이 더욱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당선자와 낙선자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주로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컸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민주당 당선자와 비민주당 당선자 전체를 비교해 보면

**<표 10> 18대 총선 서울시 기존 민주당 지역구의 민주당 당선자 및 낙선자 비교: 재정자립도**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재정자립도	민주당 당선자	7	41.600 (15,8082)	.820	.391
	민주당 낙선자	25	37.952 (7,5910)		

**<표 11> 18대 총선 서울시 민주당 당선자와 비민주당 당선자 비교: 재정자립도**

비교준거	집단	사례수	집단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p)
재정자립도	민주당 당선자	7	41.600 (15,8082)	.952	.346
	비민주당 낙선자	41	48.985 (19,3887)		

4) 재정자립도에 관련된 데이터는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https://www.laiis.go.kr>)에서 2007년도 데이터를 찾아서 사용했다. 이 데이터는 선거구별로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라 행정구역별(구단위)로 정리된 데이터이며 각 선거구의 정확한 경제수준을 지적해 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으나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지표로서는 이용 가능한 유일한 데이터로서 이 논문에 사용하였다.

한 지역구를 제외하고 한나라당 의원이 모두 승리한 비민주당 당선자 선거구의 경제수준이 민주당 당선자 선거구의 경제수준보다 높다. 즉 전반적으로 볼 경우에는 경제수준이 좋은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통계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제18대 총선 이전의 민주당 지역구에서도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보다는 한나라당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어 흥미롭다. 추후 좀 더 정확한 경제지표를 통해 분석해 볼 여지를 남겨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IV. 후보 경쟁력: 강한 민주당 후보와 약한 한나라당 후보

제III절에서는 제18대 총선 서울지역 7인의 민주당 당선자가 평균 비교분석의 대상이 된 기타 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가 이들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어 본 IV절에서는 이들 당선자 7인과 이들과 경합한 후보들의 역량을 정성적(定性的)으로 분석함으로써 후보 경쟁력의 측면에서 이들 7인이 상대 후보와 비교해 볼 때 승리 가능성이 높은 강한 후보였는가 하는 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광진을 선거구와 추미애

광진을 선거구에 출마한 추미애 후보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지닌 후보로서 이미 1996년, 2000년에 실시된 제15대, 제16대 총선에서 당선된 2선 의원이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춘천지법 등에서 판사를 지내던 추미애 후보는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한 이후 1996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하고,

1996년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별 보좌역과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김대중 후보 잔다르크 유세단장을 맡으면서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제16대 대선 이후 정동영, 김근태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합류하지 않고 제17대 총선에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다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두 번의 당선 경험과 전국적인 지명도 등으로 인해 여성 정치가 가운데 차세대 지도자의 한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던 추미애 후보는 상당히 강력한 민주당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반해서 광진을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등장한 박명환 후보는 추미애 후보에 비해서 지명도가 매우 떨어지는 인물이었다. 그는 법무법인 비전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제18대 총선 이전에 공직경험 혹은 선거경험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였고 제17대 대선에 즈음해서는 MB연대 전국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약체 후보를 맞이하여 추미애 후보는 34,854표를 얻어 24,914표를 얻은 박명환 후보를 거의 15%의 격차로 제압할 수 있었다.

## 2. 강북을 선거구와 최규식

강북을 선거구의 최규식 후보는 한국일보사에서 오랜 기간 언론인 생활을 하다가 과거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당의장 언론특보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기 시작한 이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본부장 겸 서울시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현재 민주당 서울 시당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이 초선의 경험이 있고 주요 당직을 맡으면서 인지도를 높여 온 민주당의 최규식 후보와 달리 한나라당 강북을 선거구 공천자인 이수희 후보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고문변호사, 한국척수 장애인협회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있었지만 실제 공직 혹은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은 거의 없는 약체 후보였다. 이러한 약체

후보를 상대로 현직의원인 최규식 후보는 43.50%(26,391표) 대 37.83%(22,949표)로 승리할 수 있었다.

### 3. 은평갑 선거구와 이미경

널리 알려져 있듯이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있는 4선 관록의 정치인이다. 오랜 여성운동, 인권운동 경험을 토대로 제15대 국회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미경 의원은 이번 제18대 총선에 3선 관록의 중진의원으로 은평갑 선거구에 출마하였다. 이미 제17대 국회 상반기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는 이미경 의원은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편에 속했다. 한편 이에 도전한 한나라당의 안병용 의원은 당료 출신으로 특별히 국민의 주목을 집중시킬 만한 경력이 없으며 공직선거에도 출마한 적이 없는 약체 후보였다. 4선에 도전하는 관록의 후보 이미경 의원은 무명의 도전자인 안병용 후보를 45.82%(33,638표) 대 36.77%(26,993표)로 제압하고 다시 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 강력한 야당 후보와 약체의 여당후보가 대결한 전형적인 사례로서 수도권 한나라당 바람이 세력을 발휘할 수 없는 대결구도였다.

### 4. 구로을 선거구와 박영선

구로을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제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박영선 후보는 여느 비례대표 의원과 달리 국민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은 후보로 통한다. 우선 오랜 MBC 기자생활과 앵커생활을 통해서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이후 제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주가를 높이게 되었다. 이후 열린우리당 당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하고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지원실장을 거치면서 정치적 관록을 쌓아 나갔다.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과

비슷한 경로를 거치면서 국민적 인지도와 정치적 관록을 쌓아 나갔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한편 한나라당 후보인 고경화 후보는 위의 세 선거구의 한나라당 후보와는 달리 제17대 비례대표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재선에 도전한 의원이다. 선거운동의 경험이 없다는 면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같은 비례대표 의원인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나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인지도의 차이를 반영하듯이 고경화 의원은 29,542표(40.18%)를 얻는데 그쳐 34,783표(47.30%)를 얻은 박영선 의원에게 약 7%의 득표율차로 패배하였다.

## 5. 동작갑 선거구와 전병헌

서울의 동작갑 선거구는 아래에 소개될 송파병 선거구와 함께 상당한 접전 끝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지역으로 지적된다. 비록 전병헌 후보가 현역의원으로 재선에 도전하여 출마했지만 동작을 선거구에서 정몽준이라는 거물 후보가 등장하고 수도권 전반기의 관세가 한나라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제18대 총선에서 동작갑 선거구의 선거결과도 예측하지 어렵게 되었다. 우선 전병헌 후보는 제17대 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보로서 재선을 노리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내고 이어서 열린우리당에서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당내에서 관록을 쌓아갔다. 한편 현역 민주당 의원에 맞서 도전장을 낸 한나라당 권기균 후보는 제17대 총선 이전에 특별한 정치적 경험을 가져 본 적은 없다. 그러나 국회정책 연구위원과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당내에서 브레인으로 활약한 경험이 있다.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부위원장과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거치면서 비중을 키워 왔다. 그러나 아무래도 지역구 내에서 전체적인 지명도 면에서 전병헌 의원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도전한 전병헌 의원이 수도권 한나라당 태풍의 와중에서 비교적 경쟁력있는 후보를 맞이하여 44.86%(38,014표) 대 43.45%(36,891표)로 신승(辛勝)하였다.

## 6. 관악을 선거구와 김희철

관악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희철 후보는 민선 2, 3기 관악구청장을 지낸 인물로 관악구 일대에서 비교적 높은 인지도와 조직적 기반을 지닌 인물로 통한다.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은 선거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이며, 여기에 더하여 이 지역에서 오랜 의원생활을 해 온 이해찬 의원의 조직을 물려받으면서 선거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비록 국회의원 선거를 치러본 경험은 없지만 구청장 선거의 경험과 구청장으로서의 행정경험이 분명 김희철 후보의 선거경쟁력을 더해 주었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은 김철수 후보는 한나라당과 인연을 맺고 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나 정치보다는 의료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의료인이다. 그는 대한병원협회 회장과 양지병원 원장 등을 역임했을 뿐 특별히 선거나 정당정치과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선거전 역시 관록의 후보와 정치신인간의 대결이라는 양상을 띠 수밖에 없었고, 선거결과는 46.50%(43,235표) 대 41.53%(38,618표)로 김희철 후보의 승리였다.

## 7. 송파병 선거구와 김성순

마지막으로 송파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의 이근식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후 제16대 국회의원이었던 김성순 후보가 공천을 받아 출마하였다. 김성순 후보는 초대, 2대 민선 송파구청장을 지낸 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바 있고, 제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돌풍에 밀려 3위를 차지하면서 낙선하였다. 다양한 구청장의 행정경험과 청장 및 국회의원 선거경험도 있어 비교적 강한 후보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이계경 비례대표 의원이 상당한 지명도를 지닌 강한 후보로 떠올라 선거결과가 주목되었다. 선거결과 박빙의 접전 끝에 김성순 후보가 46.96%(40,623표)의 득표율을 올려 44.39%(38,397표)의 득표율을 올린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이계경 후보에게 어렵게 승리하였다.

## 8. 민주당 7인 당선 원인에 대한 시사점

위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동작갑 선거구나 송파병 선거구를 제외하고 한나라당 후보 가운데 인지도가 있었던 후보는 거의 없었다. 박영선 후보가 대결한 한나라당의 고경화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의 경력은 있었지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으며 박영선 후보의 인지도에는 미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이들 7개 선거구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는 모두 예외없이 공직선거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인물들이었다. 이는 선거라는 고도의 경쟁현장에서 생존하는데 필요한 후보 개인의 체득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선거경쟁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계경 후보와 고경화 후보가 비록 비례대표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들 두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기초자치 단체장 선거 등에도 출마해 본 경험이 없었다.

이에 비해서 서울에서 당선된 7인의 민주당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기초자치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다양한 출마와 경쟁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던 정치인이었다. 김희철 후보의 경우 민선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서 선거에서의 전략 등은 나름대로 체득하고 있었으리라고 판단된다. 한편 아무런 선거경험이 없었던 유일한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비례대표 의원은 과거 MBC 기자와 앵커 그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한 후 대변인 등을 통해서 쌓은 전국적 지명도를 고려하면 상당히 강력한 후보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이들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첫째, 박영선 후보를 제외하고 이들이 다양한 종류의 선거경험을 지니고 있었던 경륜있는 후보라는 점이며, 둘째, 과거나 현재의 공직 혹은 국회직 경험 혹은 대중매체 노출 등 통해서 비교적 지명도가 높은 후보들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이들은 한나라당의 태풍 속에서도 자신들이 출마한 7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의석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송파병 선거구를 제외한다면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대체로 민주당 당선자들이 상대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후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 결론은 서울 민주당 지역구 가운데 해당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 재출마하지 않은 10개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 가운데, 의석 유지에 실패

〈표 12〉 제18대 총선 민주당 현역 불출마 후 의석유지 실패 6개 선거구 현황

선거구	17대 의원	민주당 후보 및 경력	한나라당 후보 및 경력	민주당 득표율 (순위)	한나라당 득표율 (순위)
광진갑	김영춘	임동순: 기업인, 정당인	권택기: 국회입법보좌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기획2팀장	35.77% (2위)	53.77% (1위)
중랑갑	이화영	임성락: 다솜 치과대표, 시민운동가	유정현: 연예인, 사회자	13.34% (3위)	40.51% (1위)
성북갑	유재건	손봉숙: 여성정치연구소 소장, 17대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정태근: 서울시 정무 부시장	36.89% (2위)	55.30% (1위)
노원병	임채정	김성환: 서울 시의회 의원, 통합 민주신당 대선후보 정책기획실장	홍정욱: 헤럴드 미디어 사장, 유명인	16.26% (3위)	43.10% (1위)
동작을	이계안	정동영: 17대 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정몽준: 울산 한나라당 의원	41.60% (2위)	54.41% (1위)
강동을	이상경	심재권: 시민일보 사장, 16대 국회의원	윤석용: 천호환의원 원장	39.44% (2위)	54.50% (1위)

한 6개 지역구의 후보들과 의석 유지에 성공한 4개 지역구의 후보들을 비교해 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현역의원이 출마하지 않아 다른 후보가 출마하여 의석을 유지한 4개 선거구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광진을(추미애), 구로을(박영선), 관악을(김희철), 송파병(김성순) 선거구이다. 이와 달리 의석 유지에 실패한 6개의 지역구는 광진갑, 중랑갑, 성북갑, 노원병, 동작을, 강동을 선거구 등이다. 이들 민주당 의석유지 실패 6개 선거구의 경쟁상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위의 〈표 12〉를 보면 광진갑, 중랑갑, 노원병 선거구의 민주당 후보인 임동순, 임성락, 김성환 등은 모두 인물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정치, 선거 경험이 거의 없는 후보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후보가 서울시 의회 의원을 지낸 경력이

있으나 여전히 무명의 정치신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두 후보는 딱히 내세울 만한 정치적 경력이 거의 없다. 이에 비해서 이들과 경합한 한나라당 후보들은 대체로 인지도 면에서 민주당 후보에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정현 후보와 홍정욱 후보의 경우 명백히 그러하다. 그 결과 임성락 후보와 김성환 후보는 2위를 차지한 무소속의 이상수 후보와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에 이어 3위에 그치는 졸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이 세 곳에서 민주당 후보자들은 한나라당 후보자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성북갑 선거구의 경우를 보면 제17대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손봉숙 후보가 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했으나 과거 새천년민주당 자체가 그다지 각광을 못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강력한 후보로 부상하는 데에는 명백히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손봉숙 후보와 경합한 한나라당 정태근 후보는 서울 부시장을 역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의미에서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제16대, 제17대 총선에서 근소한 차로 두 차례 패배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어서 결코 손봉숙 후보에 뒤지는 인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선거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강력한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제18대 총선에서 종로구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은 선거구의 하나인 동작을의 경우 정동영 후보가 전국적인 지명도를 지닌 강력한 후보임을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울산에서 서울로 옮겨 한나라당 공천으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5선 관록의 정몽준 후보에 비할 때 대선에서 패배한 정동영 후보의 경쟁력은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선거결과는 그의 패배로 끝났다. 마지막으로 강동을 선거구를 보면 심재권 의원이 제16대 국회의원을 경험한 바 있어 유리한 고지에 있는 듯하나, 사실은 제17대에 총선에서 그는 새천년민주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접전을 벌인 열린우리당 이상경 후보와 한나라당 윤석용 후보에 이어 현저히 득표율이 떨어지는 3위를 차지한데 그친 약체 후보였다. 제17대 총선 당시 윤석용 한나라당 후보는 탄핵 역풍이 강하게 부는 와중에도 이상경 후보와 접전 끝에 1,300여표의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다. 따라서 제17대 총선결과를 놓고 보면 윤석용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

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들 해당 지역구의 현역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에서 민주당 의석유지에 실패한 6인의 민주당 후보들은 의석유지에 성공한 4인의 민주당 후보와 비교해 볼 때 각각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선거 경험이나 지명도에서 상대적 열세에 처한 후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 결과와 기타 자기 지역구에서 재출마하여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의원 3인(최규식, 이미경, 전병헌 의원)의 분석결과를 함께 놓고 볼 때, 결국 7명의 민주당 당선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로 이들 당선자들이 상대방 후보에 대해 지명도와 정치 및 선거경험 등에서 우위를 점한 경쟁력 있는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V.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25개의 기존 민주당 선거구에서 출마해서 패배한 민주당 낙선자와 비교해 볼 때 민주당 당선자 7인의 생존요인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의 몇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이들 민주당 당선자 7인은 각 선거구 상대후보와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 낙선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후보들이었다. 전반적으로 이들 당선자들은 해당 지역구의 상대후보에 비해서 선거,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연륜이 깊다. 또한 적어도 지역구민에 대한 인지도 면에 있어서도 상대후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 상대후보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이러한 경험과 연륜, 그리고 인지도 등이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들 민주당 당선자가 등장한 지역구는 민주당 낙선자의 지역구보다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약세지역 혹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보인다. 이들이 당선된 지역은 정당기반 등의 측면에서 한나라당 약세지역으로 추정되며 기타 25개 민주당 낙선자 지역은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강세지역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표를 통한 분석이 추후에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총선에서 경제이슈가 분명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각 지역구별 경제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발굴하거나 개발하여 보다 엄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재정자립도라는 행정단위별 지표를 사용한 것은 이 연구의 한계가 되고 있다. 지역구별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이번 총선에서 주요한 이슈가 된 뉴타운 개발여부가 민주당 후보자의 당락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구별 원적자 조사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의 당락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번 선거에서 과연 지역투표 경향이 각 지역구별로 다르게 나타나서 민주당 후보의 당락을 결정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구별 원적자 조사가 용이한지는 확실치 않다. 이외에도 직접 당선된 후보와 낙선된 후보 등과의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선거전략이나 조직력, 자금력 등을 파악해야 보다 정확한 민주당 당선자와 낙선자 간의 차이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가상준. 2008. “18대 총선과 수도권: 서울 중구.” 『제18대 총선 평가와 정당정치 과제』. 2008년 6월 20-21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강원택. 2008. “지역주의는 변화했을까.” 『변화하는 한국의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제2장.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권혁용. 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경제투표.” 『변화하는 한국의 유권자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제5장. 서울: 동아시아 연구원.
- 대한민국 국회. 2005. 『제18대 국회 국회수첩』. 서울: 국회 사무처.
- 손병권. 2008. “18대 총선과 수도권: 서울 동작을.” 『제18대 총선 평가와 정당정치 과제』. 2008년 6월 20-21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박경미. 2008. “18대 총선과 공천과정.” 『제18대 총선 평가와 정당정치 과제』. 2008년 6월 20-21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어수영 편. 2006. 『한국의 선거: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오름.
- 임성학. 2008. “4.9 현장관찰: 손학규 공중전 vs 박진 지상전—한국정당학회 학자가 본 총선 3—서울 은평구.” 중앙일보. 2008년 3월 25일.
- \_\_\_\_\_. “18대 총선과 수도권: 서울 종로.” 『제18대 총선 평가와 정당정치 과제』. 2008년 6월 20-21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통계청. 2005. 『2005 인구·주택 총조사』.
- 한국정당학회 편. 2004.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서울: 푸른길.
- 한국정당학회 및 지방정치학회. 2008. 『제18대 총선 평가와 정당정치 과제』. 2008년 6월 20-21일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한국정당학회. 2008. 『한국 지역주의의 정치적 변형과 내재화에 관한 연구』. 2008년 9월 2일.
- 윤종빈. 2008. “4.9 현장관찰: MB 핵심 실세 vs 대선 후보 출신—한국정당학회 학자가 본 총선 3—서울 은평구.” 중앙일보. 2008년 3월 26일.
- \_\_\_\_\_. 2008. “18대 총선과 수도권: 서울 은평을.” 『제18대 총선 평가와 정당정치 과제』. 2008년 6월 20-21 한국정당학회 및 한국지방정치학회 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 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 <https://www.laiis.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 시스템. <http://www.nec.go.kr/sinfo>

“손학규. 정동영 ‘여론조사 열세, 대책 고심.’ 『동아일보』, 2008년 3월 17일.

“한나라. 의회권력 교체 … 아슬아슬한 과반.” 『중앙일보』, 2008년 4월 10일.

Brady, David W., Robert D. D'Onofrio, Morris P. Fiorina, 2000. “The Nationalization of Electoral Forces Revisited.” In David W. Brady, John F. Cogan and Morris P. Fiorina, eds, *Continuity and Change in House Elec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Jacobson, Gary C., and Samuel Kernell. 1981. *Strategy and Choice in Congress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Jacobson, Gary C. 2000. “Reversal of Fortune: The Transformation of U.S. House Elections in the 1990s.” In David W. Brady, John F. Cogan and Morris P. Fiorina, eds, *Continuity and Change in House Election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1.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Elections*. New York: Longman.

[ABSTRACT]

## Who Are They?: The Democratic Party's Seoul Survivors in the 18th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

Sohn, Byoung-Kwon | Chung-Ang University

Thanks to the landslide victory in Seoul, the Grand National Party was able to regain the majority status in the 18th parliamentary election in 2008. GNP picked up 40 seats out of 48 seats in Seoul, leaving the Consolidated Democratic Party shrunk in size. Among the 21 CDP incumbents who ran the reelection campaign in the same districts in which they had been elected in 2004, only 3 members got reelected. Together with these 3 incumbents, 1 proportional member and 3 non-incumbents were newly elected in their own districts. The question, then, is, how were these 7 candidates able to get elected despite the huge electoral advantages of GNP in Seoul area? How can we characterize CDP winners and their distric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is paper, the “lucky seven” members and their districts show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Seoul CDP winners were superior to the CDP losers in terms of candidate strengths vis-a-vis the GNP candidates. They are usually more experienced in elections and more elderly than their competitors. In addition, they are more recognized by the constituency than their competitors. Second, their districts had been leaning more toward CDP than toward GNP, thus giving them electoral advantage. Still, further research i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nclusion reached in this paper; other important factors, such as districts' economic conditions, should be discussed for a more accurate explanation.

---

**Key Words** |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Consolidated Democratic Party, Seoul, incumbent, candidate, district